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한 소녀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를 연신 감탄하면서 들었다. 어쩔 저렇게 노래를 잘 하나! 귀에 쫄쫄 박히는 노랫말에 홀린 듯 몰입해 들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가사로 유추하자면, 이 노래는 ‘안티 에이징’을 대놓고 주장한다. 나이의 제약은 견어 치우고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누리자!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우리는 나이에 따라 인생은 다른 시기로 옮겨 가고, 나이를 먹으며 필연적으로 다 른 형태의 삶을 겪는다. 나이를 생물학적 신체, 나이와 삶 의 형태와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임을 부정 할 수 없다. 늙음은 한물간 퇴색이 아니다. 하지만 다들 나이 들을 기피한다. 젊음이 늙음에 견줘 더 가치가 있다 는 사회 통념이 늙음을 기피하는 태도를 부추긴다.

늙음은 인생이란 자신을 한 톨도 남김없이 거털 낸 노름꾼이 아니건만 늙음에 대한 반감은 꽤나 넓게 퍼져 있다. 본디 젊은이가 제 아버지가 교사를 상스럽게 낫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춰 부르는 ‘꼰대’도 이즈막엔 나이 들을 싸잡아 혐오하 는 용어로 바뀌었다. 나이 든 자는 다 꼰대 취급을 받는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늙음을 기피하는 세태를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과연 늙음은 수치고, 허창음이며, 쓸모없음으로 전락인가?

‘안티 에이징’은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 노화를 늦추 자는 것이다. 늙음을 폄하하고 젊음을 숭상하는 세태가 ‘안티 에이징’의 유행을 낳는다. 동안(童顏) 송배도 그 유행의 한 조각이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흑발에서 백발로 변한다. 이 자연스러움을 한사코 기피하는 세태가 우스꽝스럽다.

물론 청춘은 풋풋하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한 구절을 켈 만한 지적 능력이 없더라도 젊은 생의 추동력은 눈부시기만 하다. 불의와 부조리에 반항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젊음은 근력과 재능이 넘치고, 생은 약동한다. 하지만 여러 모순을 품은 채 불안정을 드러내고 실수가 잦은 것도 사실이다. 제 안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험의 결핍과 부족 속에서 방랑에 빠질 때 젊음은 ‘혼란의 동맹군’ (크리스티안 샌제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청춘이 무조건 아름답다는 말만은 하지 말자.

늙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선 첫 경험이다. 노화는 인생의 과정일 뿐이다. 모든 생명체는 노화를 겪는다. 노화는 개체가 죽음에 이르게끔 끝난다. 다들 망각하지만, 늙음에도 한때는 청춘이었다. 난자가 정자와 결

합하고 수정이 이루어진 생의 첫 순간부터 인간은 늙음을 향해 달려간다. 늙음은 추락도, 불명예도 아니다. 이것은 약속된 생의 프로그램일 뿐이다.

우리는 늙으면서 상실과 쇠락을 겪는다. 늙음이 자랑스러운 훈장은 아니지만 숨기고 싶은 수치나 약덕도 아니다. 늙음이 빛나는 순간 그것은 쇠락 속에서 통찰과 지혜, 황혼의 평화와 같은 덕목을 드러내는 인생의 원숙기인 것이다. 한국계 미국 이민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그린 영화 ‘미나리’에서 한국 할머니 연기를 한 배우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아시아 배우로서는 두 번째라고 한다. 한국 영화사 1백년 만에 거둔 이 놀라운 성과를 낸, 나이 74세의 이 배우는 오스카 수상식장에서 한 점의 주눅 들 없이 당당했다. 윤여정 씨의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주름이 많은 얼굴을 보면서 늙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모두들 생각했다.

누가 늙음을 잔인한 간수이자 감옥이라 하는가?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늙음이 추하다는 소문은 유언비어이다. 그건 헛소문이고, 가짜 뉴스다. 청춘이란 영예는 거저 얻어진 것이지만, 노년의 충만함과 완숙 경험을 표상하는 백발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 윤여정 씨, 당신이 한국의 배우여서 자랑스러워요! 늙음이 별처럼 빛날 때 젊음과 노년은 그 자체로 가치의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그리고 백발이 보여 주는 창조주의 같은 위엄은 슬픈 시련과 수고의 결과라는 점을 새삼 깨닫는다.

종교칼럼

은밀한 동맹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좀처럼 어떤 반응도 없다. 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이득이 무엇이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은밀함’을 추구하는 이들은 세상의 만연된 불의와 폭력, 불평등과 차별에 은밀히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참된 신앙인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인간의 올바른 관계성을 제시한다. 이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가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예수께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유의 주인공은 강도를 만나 초추검이 된 사람이 아니고, 강도를 당한 이를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쳐 버린 사제와 레위인도 아니다. 주인공은 강도를 만나 초추검이 된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명을 구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는 강도를 만났던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율법 교사에게 묻는다. 율법 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율법 교사에게 “거서 너도 그렇게 하려라”고 하며 비유는 마무리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신의 저서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하면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제와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노상 강도

들’은 흔히 ‘반대쪽을 보면서 길을 지나쳐 가’는 자들과 은밀히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용하고 속여 소진시키려는 자들과, 자신이 순수한 비평가 역할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체제와 자원들에 기생하여 잇속을 차리는 자들이 내뿜고 있습니다.”

교황은 세상의 부를 차지한 이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인간 존재는 모두가 소중하며 특히 그 생명을 어느 누구라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적처럼 내던져 버려서는 안된다.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다른 이들을 도외시하거나 이웃의 역경에 무관심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교황은 이를 ‘안타까운 위선의 존재’와 ‘완벽한 악습의 고리에 가두는 것’이라 하시며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겉치레·변장이 벗겨지도록 이끈다.

가톨릭 신앙인은 우리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생명을 수단과 같은 이용 가치로 짓밟는 어떤 관념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이 원하셨던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신앙인이다.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는 것은 곧 이웃과 공유하고 나누어야 하는 인간 상식의 관계를 끊어 버린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탐욕, 천박한 돈의 노예, 부자와 기득권에게 굽실거림으로 나의 바람과 원의를 채우는 ‘은밀한 동맹’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자. 다만 주어진 대리의 삶, 봉사자의 삶, 희생의 삶, 사랑과 자비의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기고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하는가



김창석
수필가

“작은 물결” 소파(小波) 방정환! 그는 33년의 짧은 생애를 온통 어린이와 함께했다. 향시 ‘어린이’ 책자를 통해 어린이의 희망을 노래하였으며, 색동회를 활성화시켜 어린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데 헌신하였다. 그는 어린이의 대부였다. 1931년 소파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큰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어린이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우리 사회 또한 어린이 사랑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는가를 솔직히 성찰해 볼 일이다.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건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정인이란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어느 날부터 돌변하여 반인륜적인 학대로 죽음으로 몰고 간 희대의 비극이었다. 아이는 학대의 매를 더 버티지 못하고 병상에서 숨졌다. 8개월 동안 무려 800개의 학대 장면 동영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사회는 온통 탄식과 경악으로 들끓었다. 2019년 출생한 정인이는 짧기만 한 492일간의 삶 가운데 254일간을 양부모에게 희생당했다.

그 밖에도 지난해 천안 ‘가방 아동 학대’ 사건, 올 2월엔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사건, 35차례 폭행으로 아동을 사망케 한 20대 부부 사건 등이 꼬리를 몰며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사건 피해 아동만 160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도처에서 위기에 처한 이러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어린이 보호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린이 사랑을 일깨워 주는 감동적인 일화와 어록들이 있다.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는 거액의 담배 광고 제의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거든요”라고. 그는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했다. 어떤 상품이든 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그 상품을 사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펠레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거액의 미끼로도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를 유혹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내 가슴은 뛰누나’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구절이 있다. 어린이들만이 간직하고 있는 동심의 순수성을 어른들은 이미 잃어버렸고 이제는 어른들의 삶에 근원적 모범이 된다는 의미이다.

H. F. 아미엘도 “어린이의 존재는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혜택이며 이들을 통해서만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고 썼다. 아이들을 귀하게 알고 그 마음을 가지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없다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각박할지 알 수 없다. 불행히도 현실의 시계는 각박 쪽에서 머무거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그 순수한 가치를 망각하거나 무심히 포기해 버리지나 않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社說

5·18 진상 규명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 중간보고에서 눈에 띄는 점은 5·18 당시 계엄군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 저격수로 활동한 계엄군이 시민의 목을 직접 조준해 저격했다는 첫 증언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상조사위는 11공수여단 네 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시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암매장과 행불자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이다. 계엄군이 진압을 목적으로 한 ‘중정작전’과 ‘대집투작전’을 병행 실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5·18에 대한 신군부의 대응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는 나이가 전두환·노태우·

장세동 등 신군부 실세들과 유혈 진압 현장 지휘관 등 37명을 ‘5·18 가해 책임자’로 압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대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고 관할 검찰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진상 규명을 위한 갖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발표 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밝히는 데는 줄곧 실패했다. 더군다나 5·18 핵심 가해자인 전두환 등 핵심 인물들이 고령이어서 사실상 이번 조사가 진상 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상조사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역량을 모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에서도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사 위기 처한 지역 대학 살릴 방안 마련을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 및 이 지역 17개 대학과 함께 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섰다. 신입생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되는 등 지방대학 고사 위기가 닥쳐옴에 따른 공동 대응이다.

광주시는 우선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대학발전 협력단(협력단)을 출범시켰다. 협력단에는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17개 대학이 참여했다. 협력단은 신입생 미충원과 취업난 등 현안과 관련해 대학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찾고 장단기 과제를 현실적처럼 내던져 버려서는 안된다.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다른 이들을 도외시하거나 이웃의 역경에 무관심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교황은 이를 ‘안타까운 위선의 존재’와 ‘완벽한 악습의 고리에 가두는 것’이라 하시며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겉치레·변장이 벗겨지도록 이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가 손을 마주 맞잡은 것은 지방대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광주 지역 4년제 주요 대학들에서는 2021학년도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전남대 광주 용봉캠퍼스의 경우 83개 학과 중 사범대학 일부 등 4개 학과가 정원에 미달했다. 조선대는 총 76개 학과 중 42.1%인 32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호대는 총 40개 학과 중 절반가량인 18개 학과가 미달했다.

학령인구(學齡人口) 감소와 수도권 대학 학생 쏠림 현상으로 지방대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등은 수년 전부터 켜진 상태였다. 대학들이 예견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제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와 취업률 높이기 등 특단의 자기책을 마련해야 한다. 협력단은 대학이 지역의 거점이며 대학의 침체나 폐교는 지역 사회 발전 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감안, 지역 역량 결집과 함께 대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온갖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군량미, 즉 병사에 대한 급식 문제는 사극(史劇)이나 전쟁영화 등에 곧잘 나오곤 한다. 장기간에서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해 고사시킨다거나 군율을 세우기 위해 군량미를 빼돌린 병사를 참수하는 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끈다.

기록상으로도 고대든 중세든 군량미를 빼돌린 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 거의 참형에 처해졌다. 이를 반영한 삼국지에도 조조가 군량미를 횡령한 장수를 참수하는 장면이 보인다. 조조의 군대가 원술을 토벌하려 나섰을 때

군인의 식사

떨어지자 급식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에 군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자 조조는 급식담당 장수인 ‘왕후’가 군량미를 빼돌렸으며 그의 목을 베어 버린다. 횡령한 자를 처단함으로써 군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투를 독려한 것이다. 이로써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사실 왕후는 억울했다. 실제로 군량미를 횡령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조조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부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군량미에

관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1594년 7월3일 자에는 ‘각 배에서 여러 번 군량을 훔친 자를 처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같은 해 9월11일 자에는 ‘남평의 색리와 순천 격군으로 세 번이나 군량을 훔친 자들을 처형했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색리는 감영(監營) 또는 군야(郡衙) 등의 곡물을 관리하는 아전이며, 격군은 노 짚는 수부를 말한다. 처형된 자들의 죄목은 모두 절도죄였다. 하지만 훔친 쌀을 팔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점을 보면 병졸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쌀을 훔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순신이지만 군량은 전투사령이요 군율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알려진 군부대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 문제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장병들의 부실 급식 온라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예산 부족 때문이라면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나폴레옹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군대는 잘 먹어야 진격한다.” /채희종 사회부장chae@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인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
| 220-0649 | 222-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편집부 | 220-0632 | 예향부 | 220-0692 |
| 220-0663 |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경제부 | 220-0652 | 체육부 | 220-0621 |
| 220-0642 | | 기자인실 | 220-0536 |
| | | 서울지사 | 02-773-9331 |
|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